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이란과의 합의 기대. 휴전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

-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위시, 통화정책 독립성 강조. 미국 정부는 관세 환급 개시
- ECB 라가르드 총재, 중동전쟁에도 금리인상 신중. EU는 對이란 제재 강화 준비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환율 안정 등이 주요 배경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관련 다양한 의견 및 전망 등이 영향

주가 하락[-0.2%], 달러화 약보합[-0.04%], 금리 강보합[+0.3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중동 긴장 고조, 기술주 매도 증가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여행 및 항공 관련주 부진 등으로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장초반 상승했으나 일부 낙관적 기대 등으로 약보합 마감
유로화 가치는 0.2% 상승, 엔화 가치는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일부 협상 타결 기대 속 유가 상승 영향으로 강보합
독일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종가 1469.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1.0원, 0.42% 하락). 한국 CDS 약보합

		4/20일	4/17일	전일대비			4/20일	4/17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7,109.1	7,126.1	-0.24%	국채 금리 10y	미국	4.25%	4.25%	+0bp
	유럽	621.46	626.58	-0.82%		독일	2.98%	2.96%	+2bp
	중국	4,082.1	4,051.4	+0.76%		영국	4.83%	4.76%	+7bp
	일본	58,825	58,476	+0.60%	CDS 5y	한국	29bp	29bp	-0bp
	한국	6,219.1	6,191.9	+0.44%		중국	42bp	42bp	-0bp
					위험 지표	EMBI+	-	254	-
						VIX	18.87	17.48	+7.95%
						WTI유	89.61	83.85	+6.87%
환율	달러지수	98.05	98.10	-0.04%	원자재	구리	604.6	611.5	-1.12%
	유로화	1.1788	1.1765	+0.20%		금	4,820.7	4,830.3	-0.20%
	엔화	158.81	158.64	-0.11%					
	위안화	6.8173	6.8182	+0.01%					
	원화	1,477.2	1,483.5	+0.4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이란과의 합의 기대. 휴전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

-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수 시간 내에 도착할 것이며,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언. 또한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면 자신이 직접 이란 고위 지도자들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언급.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포기를 강조. 이란과의 협상은 21일 시작되고 휴전 기한은 22일 저녁(미국 동부 기준)이라고 설명
- SNS에는 이란의 새로운 리더들이 현명하다면 결과는 놀라울 것이고, 이란은 번영의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게시. 또한 이번에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는 '15년 오바마 정부 때와 비교하여 훨씬 좋을 것이라고 주장. 한편, 2주간 이어진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합의 이루어질 때까지 호르무즈 봉쇄), 유가는 전쟁이 끝날 경우 곧바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
- 한편,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2차 회담에 참석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으나, 의회의 에브라힘 아지지 국가안보위원장은 레드라인이 존중된다면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발언. 로이터, CNN 등 일부 매체 또한 이란이 2차 종전 협상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파키스탄 측에서는 이란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발표
- 일부에서는 이란 지도부 내에서 의견 대립과 권력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대표단이 협상에 나오더라도 내부 분열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나중에 손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The Economist). 한편, 쿠웨이트 국영석유공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유로 약속했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워시, 통화정책 독립성 강조. 미국 정부는 관세 환급 개시

- 워시 지명자는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발언문에서 통화정책의 엄격한 독립성 유지를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 대통령이나 의회 인사들이 금리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고 독립성이 특별히 위협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 한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관세 환급 1단계를 20일에 시작한다고 발표

■ 미국 법무부, 농축산물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 감독 강화. 최근의 가격 상승 경계

- 법무부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을 겨냥하여 관련 업계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 일례로 Cargill, Tyson Foods 등 주요 기업의 농축산물 경매 가격 책정 방식에 대한 조사를 착수. 최근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치솟아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인다는 의견이 제기

■ 캐나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개월래 최고. Goldman Sachs 원유 재고 급감 전망

- 캐나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2.4% 올라 전월(1.8%) 대비 상승세 강화. 전월비 기준으로는 0.9% 올라 전월(0.5%) 대비 높은 수준. 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3개월, 14개월 만의 최고치. 이는 유가 상승 등에 기인
- 한편, Goldman Sachs는 미국-이란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글로벌 원유 재고가 생산량 감소, 운송 차질 등으로 9억배럴 감소하여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고가 13억배럴 감소하고, 브렌트유 가격은 2/4분기에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 ECB 라가르드 총재, 중동전쟁에도 금리인상 신중. EU는 對이란 제재 강화 준비

- 라가르드 총재는 중동전쟁이 관련 충격의 지속 기간 및 가격 전가의 확산이라는 2가지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고 지적. 이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경우 명확한 통화정책 대응이 어려우며, 금리인상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
- EU는 對이란 제재의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한 개인 및 단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합의에 근접했다고 발표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환율 안정 등이 주요 배경

- 인민은행은 1년 및 5년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3.0%, 3.5%로 동결. 이번 결정은 중동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안화 환율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 통화당국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 상승을 주요 과제로 제시. 양호한 1/4분기 GDP도 금리동결에 일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2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소매판매,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 의회 청문회
- ECB 권도스 부총재 및 나겔 위원 발언, 독일 3월 ZEW 경기기대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동전쟁, 미국-이란의 협상 타결이 아닌 점진적 사태 악화가 예상 - Financial Times

(The Iran crisis has not yet peaked)

- 미국은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불확실성 높은 편. 특히 양측의 원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는 점은 향후 협상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핵농축 수준, 항행의 자유, 대이란 제재,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 등에서 아직 첨예하게 대립
- 아울러 통상적인 여건일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상황(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이 매우 촉박.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할 경우 이번 중동전쟁은 점차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미국 경제, 주가 신고가 불구 高유가高금리 등으로 전쟁 이전 수준 복귀는 난망 - WSJ

(Stocks Are Back at Records, but Bond Investors Haven't Joined the Party)

- 미국 S&P500지수는 중동전쟁 이후 한때 8% 하락했지만, 종전 낙관론·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상승 반전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하지만, 원유의 현물 및 선물 가격은 중동 에너지 시설의 장기적 피해 등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지속
- 아울러, 중동전쟁發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국채금리는 전쟁 이후 상당 폭 상승(10Y:3.961→4.251%)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은 감소(79→11%, CME). 군사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마진 압박 및 가계 소비 감소가 예상. 이러한 상황은 종전 이후에도 경제가 단기간 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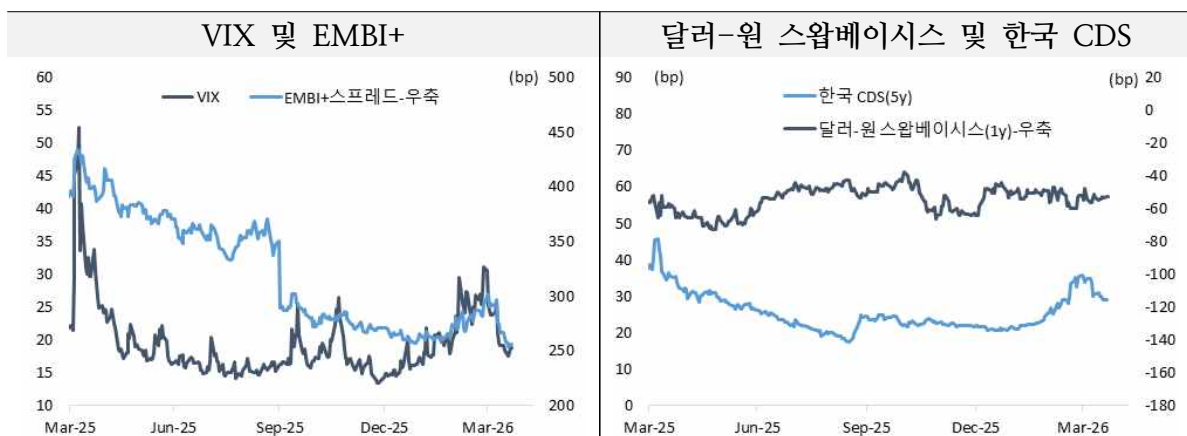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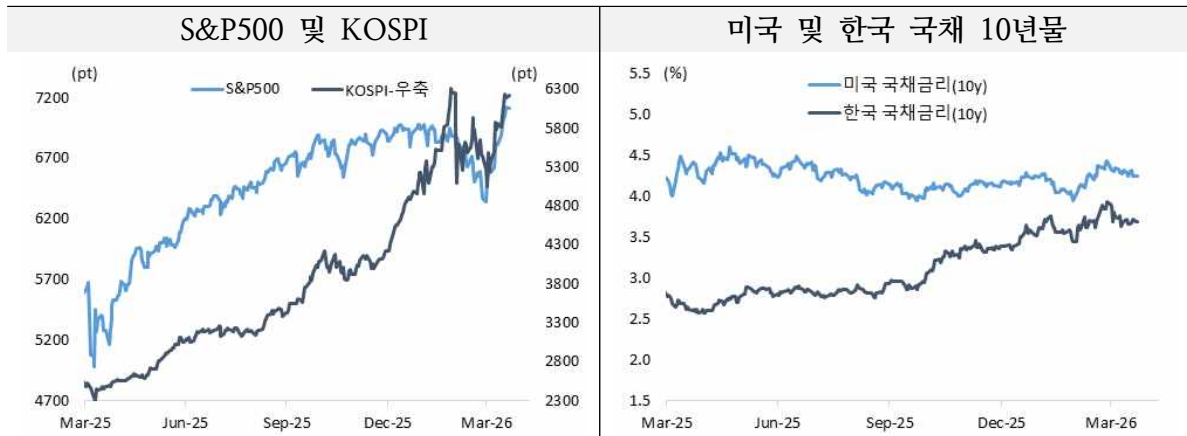
■ 미국 노동시장, 고용주 집중화 현상 등으로 경기침체와 유사한 양상에 직면 - 블룸버그

(Why Are Workers Stuck? Not Enough Employers)

- 미국 경제는 경기침체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나, 노동시장에서는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 실제로, 이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도 둔화. 이는 전체 고용 수요에서 일부의 비중이 커지는 '고용주 집중화(employer concentration)' 때문
- 고용을 원하는 기업이 많고 선택지가 넓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이직과 임금협상 여지가 확대. 그러나 일부 소수 기업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현상은 악화. 이는 경기 침체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일종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이에 정책 당국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각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 경제 효과에 비해 부채 리스크 증폭시킬 우려 - 블룸버그**
(A wartime economy would be different this time)
 - 20세기 후반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 지출은 꾸준히 감소했으나, 최근 정치 환경과 기술 변화 속 국방 지출이 다시 증가. 과거 군사 지출은 대규모 고용 창출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향후에는 그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
 - 현대전은 AI 기반 자율 무기와 정밀 타격 위주로 변화하면서 고숙련 인력 수요는 증가하더라도 과거처럼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다만 국방 지출은 여전히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 보조금’ 역할을 통해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
 -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국가 부채와 금리로, 역사적으로 이자비용이 국방비보다 커질 때 강대국의 패권이 약화. 미국 역시 국방 지출 확대와 재정 부담 증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 향후 미국의 패권국 지위 유지 여부는 단순 군사력보다 국가 부채 관리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제의 회복력, 중동전쟁 등의 충격으로 지속 여부는 불확실 - 블룸버그**
(Has the Global Expansion Weathered Too Many Hits?)
-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 高비용·低생산성 등으로 글로벌 번영 저해 - 블룸버그**
(The New Global Order Is an Assault on Prosperity)
- **미국 증시, 종전 기대·양호한 실적 전망이 반영. 다만 확전 시 위험 증폭 - 블룸버그**
(Markets Get in Tune to the Strait and Narrow)
- **향후 미국의 금융위기, 잠재적 주요 원인은 대규모 부채와 사모금융 - Financial Times**
(What will drag the financial system into another crisis?)
-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워시, 트럼프에 금리 관련 이견 나타낼 소지 - Financial Times**
(Kevin Warsh: Trump's next fall guy at the Fed)
- **중국의 소득세 감면, 소비 촉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선택지 - Financial Times**
(China does have one powerful lever to boost consumption)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